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창립 9주년 기념 토론회

인공지능과 어린이청소년문학

- 일시 2026년 6월 27일(토) 14:00~17:00
-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
- 주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기획의 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글쓰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창작의 영역에 스며드는 속도에 비해, 우리가 지켜온 문학적 가치와 창작의 본질을 두고 나누어야 할 비평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창작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검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활용의 경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물을 기존과 같은 의미의 ‘문학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인공지능과 어린이청소년문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술적 환경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 이재복, 문경민, 길상효, 강수환, 강인승, 2026

- * 이 자료집에 실린 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 이 자료집에 실린 글은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인용이 불가합니다.
- * 이 자료집에 실린 글은 저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수집 및 활용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창립 9주년 기념 토론회 진행 일정

○ 등 록		13:30~14:00
○ 개회사		14:00~14:10
○ 1부 발제 및 토론		14:10~16:00
발제	이재복(평론가)	글감독의 탄생 시가 바꾼 글쓰기의 미래
	문경민(작가)	작가의 글쓰기와 인공지능
토론	길상효(작가)	강수환(평론가) 강인송(작가)
사회	유영진(평론가)	
○ 2부 전체 토론		16:00~17:00

토론문과 발제문 목차

○ 글감독의 탄생 시가 바꾼 글쓰기의 미래		
이재복	1
○ 작가의 글쓰기와 인공지능		
문경민	8
○ 인간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		
길상효	12
○ 생성형 AI 시대의 저자/저자성에 관하여		
강수환	14
○ 읽고 쓰는 사람의 AI 대하기		
강인송	17

글감독의 탄생 AI가 바꾼 글쓰기의 미래

이재복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챗GPT’를 처음 써보고 나서, 이 글 쓰는 기계가 아동청소년문학 판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 이 직감에 의지해 작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며, AI와 다양한 장르 실험을 해본 경험을 살려 한 권의 책을 냈다. 『글감독의 탄생 AI가 바꾼 글쓰기의 미래』(출판놀이, 2026)란 책을 쓰면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발제문 대신해 몇 가지 소개해보겠다. 혹 책을 읽은 분들은 내용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란다.

1

위 책, 첫 장에서는 AI가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이야기 변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어슐러 K. 르 권은 『내해의 어부』(최용준 역, 시공사, 2014)란 단편집 서문에서 자신만의 창작 기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SF에서 매개변수를 바꾸는 것은 재미와 변화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작품의 성격과 구조에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SF를 쓰는 작업은 이야기 매개변수를 바꾸는 놀이라는 것이다. 나는 매개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AI와 다양한 장르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AI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오문역 할머니가 구연한 「나무꾼과 선녀」 도입 부분을 프롬프트한 다음에, 이 민담에 작동하는 이야기 매개변수를 스무 가지 정도만 분석해 달라고 해보았다. AI는 매우 훌륭하게 분석해주었고, 스무 개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이 탁월한 분석 능력을 보면서 아,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비평가들이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할 것만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번에는 르 권이 말한 대로 AI가 과연 매개변수 변환 작업도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았다. 『그림 형제 민담집』(김경연 역, 현암사, 2012) 스물한 번째 이야기인 「재투성이 아센푸텔」 도입 장면을 프롬프트해주었다. 아센푸텔 어머니의 성격을 매개변수로 정해서 새로운 각편을 만들어보기로 하였다. AI에게 일반적인 어머니의 성격을 열 가지만 알려 달라고 하였다. 헌신적인 어머니, 강인한 어머니, 혼란스러운 어머니, 차가운 어머니……. 이런 식으로 열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주었다. AI는 민담 속 헌신적인 어머니 유형을 혼란스러운 어머니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AI는 프롬프트한 원문의 문체를 그대로 유지하며 변환 작업을 해주었다. 이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AI의 이런 변환 능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미완성 작품의 한 장면을 선택하여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싶은 매개변수를 지정해주고, 원문의 문체와 톤과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각편을 만들어달라고 프롬프트해보라. AI는 이 작업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무얼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 작품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 매개변수를 찾아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을 좀 더 이기적인 캐릭터로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AI에게 주인공의 이기심 수치를 훨씬 높여서 각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있다. 호러물을 쓰는데, 배경의 분위기를 좀 더 어둡고 스산하게 하고 싶다면 배경 어둠의 강도를 더 극대화시켜 각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아마도 AI는 이 모든 작업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 가운데는 AI와 매개변수 놀이 과정을 흥미롭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기존 글쓰기 방식을 고수하는 작가들과 AI와 협업하는 작가들 사이에 창작의 과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AI 이후 문학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 같다. 전통적인 유형의 글쓰기 작품을 즐기는 독자들이 있는가 하면, AI와 협업한 인공지능어의 재미와 이야기 변환 능력을 즐기는 독자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 아직은 비평의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의 AI 글쓰기 작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나올 것이라 본다.

그런데 작가들이 선뜻 AI와 협업한 작품이라고 내세우며 책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들이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자성의 개념이 여전히 문학 풍토 전반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를 거쳐 오면서 작가는 “나 혼자 썼다”는 어떤 원본에 대한 아우라를 내세우며 저자의 권위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독자 또한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 혼자 이 힘든 일을 해냈다”는 원본에 대한 아우라를 인정하며 작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작가와 독자의 욕망이 맞아떨어지고, 출판사업자에게도 작가에게 ‘독특한 작품을 생산하는 저자’라는 권력을 부여하는 쪽이 책의 판매에도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AI와 협업을 하다 보면 이 저자성의 권위가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존 작가들이 AI와 협업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얻었다 하더라도, 무언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명 AI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면 저자성의 권위를 기계와 나눠 가져야 하는데, 기계의 몫을 작가 자신이 독점하면서 생기는 뭔지 모를 양심의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다.

인간이 쓴 작품과 AI가 쓴 작품을 놓고 독자 반응을 연구한 글들을 읽어보면, 독자들은 대개 이런 반응을 보인다. 두 작품을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던 작품도, AI가 썼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금방 실망하면서, 심미적인 비평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가 작업한 책에는 AI와 협업한 작품 전문을 실어 놓았다. 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들어보니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어떤 독자는 작품 시작 부분 몇 문장을 읽고는 “아, 이걸 AI가 쓴 문장 냄새가 너무 나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또 “AI가 이 정도로 글을 쓴다면 과연 내가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독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작품이 AI가 쓴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평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기계가 쓴 작품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인간 작가의 저자성 권위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문학 풍토에서 작가들이나 출판사업자는 AI와 함께 쓴 작품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독자들이 이렇게 AI와 협업한 작품 자체를 비평과 감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데, 과연 새로운 형태의 AI 문학은 탄생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도 AI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재미있는 작품인데도 읽으려 하지 않고 외면할까? 아이들은 저자성에 대한 편견이 없이, 누가 썼느냐를 묻지 않고, 재미만 있으면 즐겨 읽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AI 문학은 아동문학 현장에서 먼저 꽃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인간 작가의 저자성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늘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는 새로운 문명의 도구로 실험해 보는 작업을 즐겨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이 하나둘 모여서 서로의 작품을 돌려 읽고, 책을 만들어 나눠 읽고 하다 보면, 인공지능어를 기반으로 하는 AI 문학도 기존 인간의 저자성을 강조하는 전통 문학과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공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반의 AI 문학이 AI 기술과 접목하면서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중 어떤 작가들은 전통 방식의 글쓰기를 즐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글감독의 자리에서 AI와 협업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

AI 이후 문학의 풍토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글감독이 AI와 협업한 작품이 유통시장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가 AI 문학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AI를 자기 몸처럼 사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문학의 주된 창작자와 소비자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품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다.

2

2장에서는 텍스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다. 레비스트로스가 『야생의 사고』(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안성남 역, 한길사, 1996)에서 말한 변환체계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작가의 허락을 받고 동화 한 편을 선택하여 실험을 해보았다. 작품 도입 부분을 프롬프트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매개변수 요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해보았다.

AI는 등장인물의 종이나 정체성을 바꿔보라는 제안을 해주었다. 주인공을 유령 아이, 외계 생명체, 잠에서 깬 마법사 같은 대상으로 바꿔보라고 하였다. 집이라는 공간도 행성 간 택배 수령소나, 비밀 연구소, 시간이 멈춘 장소로 바꿔보라고 하였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수십 가지 제시해주었다. AI가 준 아이디어를 직접 AI에게 시연시켜 보았다.

AI는 원문의 문체와 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훌륭하게 변환 놀이를 해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응당 작가라면 저자성의 문제를 놓고 다시금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쓴 초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작가는 “나만이 혼자 이 작품을 썼다”는 저자성을 당연히 주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자성의 훼손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통 작가의 입장에서는 AI와 협업하는 작업이 저자성의 훼손을 불러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작가에게 집중됐던 저자성의 권위가 해체되면서, 작품을 가지고 훨씬 더 재미있게 놀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비평가나 철학자 등이 저자의 죽음을 논하고, 저자성의 권위를 해체해보려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의 주인은 작가에게 있다는, 저자가 작품에 대해 주장하는 소유권은 자칫하면 작품에 대한 해석마저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자의 권위에 눌러 작품의 해석마저도 작가가 독점하고, 독자 대응은 작가가 해주는 해석만 답으로 알아야 한다면, 작가에게 부여된 저자성이 오히려 다양한 감상과 비평의 기능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비평가나 철학자 등이 저자성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저자성에 얽매어 있던 고정된 텍스트의 성질을 좀 더 자유롭게 변환 가능하고 해석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 독자 대중들이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변환하면서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글작가와 비교했을 때, AI와 협업을 하는 글감독은 애초부터 저자성의 권위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기계와 나누고 배분하여 원본에 대한 아우라 자체를 주장하지 않고, 좀더 유연하게 작품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감독이 AI와 협업한 작품은 AI를 통해 언제든지 변환 가능한 텍스트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하나의 데이터로서 온갖 독자들의 손에서 다시 재배치되고, 재수정되며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AI와 협업하는 글쓰기는 기존 전통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문학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창작의 대중화, 창작의 민주화라는 개념도 생각해볼 만하다.

테드 창은 이런 말을 한다. “아이디어만 있고 글쓰기 자체를 성가셔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성형 AI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들은 매체의 고유한 노동과 표현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물만 얻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창작자들은 그 매체의 특성과 표현의 즐거움을 깊이 이해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노동을 기꺼이 감수한다.”¹⁾

이 말은 철저하게 전통적인 방식의 글쓰기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거대언어모델(LLM)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

¹⁾ 테드 창, 'AI가 예술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Why A.I. Isn't Going to Make Art), 《뉴요커》, 2024. 8. 31.
<https://www.newyorker.com/culture/the-weekend-essay/why-ai-isnt-going-to-make-art>

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대언어모델처럼 기존의 언어에 내재된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언어를 생성하는 방식은 기존 언어의 규칙을 벗어나는 언어를 생성하기 어렵다. …… 따라서 현 단계 거대언어모델로는 기존의 문학을 뛰어넘는 문학의 탄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암묵적으로 통용되어온 기존의 문학 조건을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언어는 기존의 문학 장에 충격을 가하는 문학이 되기 힘들다는 말이다.”²⁾

그러나 아직 AI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나는 지금 인간의 프롬프트 기술로는 AI가 가진 글쓰기 잠재력을 다 뽑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AI는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패턴을 무한대로 찾아내 얼마든지 변환 놀이를 구현해낼 수가 있다.

문예 비평가 마저리 펠로프는 이런 AI 프롬프트 기술 능력이 탁월한 글감독을 “비독창적 천재”(unoriginal genius)라고 부른다. “펠로프가 생각하기에 기술과 인터넷이 초래한 변화 때문에 이제 천재를 낭만적이고 고립된 인물이라고 보는 관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시대 변화에 따라 수정된 천재에 대한 관념은 그 사람이 정보와 그 유통에 얼마나 능통한지에 집중할 것이다. 펠로프는 언어를 이리저리 다루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움직이는 행위 모두를 나타내도록 ‘움직이는 정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펠로프는 오늘날의 작가는 고통받는 천재보다는 글쓰기 기계를 멋지게 개념화하고, 구축하며, 실행하고, 유지하는 프로그래머를 닮았다고 가정한다.”³⁾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독자 역시 작가가 쓴 원작을 고정된 텍스트로만 보지 않을 것이다. AI와 매개변수 놀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 삼아, 원작을 재창작하는 독서를 즐길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창작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한 예로 내가 AI와 작업한 작품을 책에 실을 때, 이 작품이 AI와 협업한 작품이란 사실을 밝히는 몇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

1) 작품 시작 말머리에 이렇게 공지를 하였다. 「로봇 사서의 비밀 도서관」은 AI와 협업해 만든 작품이다. 글감독은 작품을 구상한 뒤 거의 모든 장면을 AI에게 연출시켰다. 글감독은 AI가 써준 다양한 문장을 최대한 편집하여 맥락, 호흡, 리듬이 있는 스토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또한 AI가 작성한 「로봇 사서의 비밀 도서관」 창작 윤리 선언문을 아래와 같이 실어 놓았다.

이 작품은 인간 작가와 인공지능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협업’이란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 고민과 결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과정을 의미합니다. AI는 때로 문장을 다듬고, 장면을 구성하고, 캐릭터 대사를 제안했지만 이야기의 뼈대와 숨결, 등장인물들의 마음과 성장의 여정은 오직 작가의 손끝과 고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AI는 데이터로부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울릴 것인가, 어떤 삶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인가는 끝내 인간 창작자의 몫입니다. (중략) 2025년 ○월 ○일 / 글감독 ○○○, 협업 인공지능

3) 기존 작품집에 표기하는 저자 서명은 ‘글감독 ○○○ 협업 인공지능’이란 말로 대체했다. 앞으로 동화책을 펴낼 때 AI와 협업한 작품은 위와 같은 형식을 최대한 반영하면 어떨까 싶다.

3

3장에서는 ‘AI 이후, 사이보그 동시인의 탄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기존 동시 역시 시인의 허락을 받고 실험 작품으로 삼아 매개변수 변환 놀이를 해보았다.

2) 김언, 「생성언어는 어떤 문학적 체험을 요구하는가?」, 권보연, 김언, 허희, 『어쩌면 문학이 아닐지도 몰라』 리메로박스, 2026, 116쪽.

3) 케네스 골드스미스, 『문예 비창작: 디지털 환경에서 언어 다루기』, 길예경, 정주영 역, 위크롭프레스, 2023, 13~14쪽.

오늘, 봄⁴⁾

임복순

수업 마치고 나오는/한 아이를/봄.//
아이가 핸드폰을 꺼내/개나리꽃 목련꽃 찍는 것을/봄.//
새싹도 찍고 풀꽃도 찍으면서/머리카락에 쏟아지는 햇살을 찰랑거리며/길모퉁이로 돌아가는 모습을/봄.//
봄에/또 봄을/오늘/봄.

“봄에/또 봄을/오늘/봄”은 언어유희처럼 느껴지며, 봄(계절)과 봄(보다)이 어울리면서 밝고 흥겨운 에너지를 퍼뜨린다. AI에게 이 작품을 걸크러쉬 버전으로 변환해달라고 부탁해보았다.

내가 찍은 봄

수업 끝났고,/나 먼저 나왔지./햇빛? 내 쪽으로 쏠렸고.//
폰 꺼내./한 장, 찰칵./개나리 터졌고, 목련은 내 배경.//
고양이 지나가?/타이밍 좋았어./그대로 저장.//
머리카락에 빛이 걸려./알지, 그 느낌./찰랑거리며 돌았지, 골목으로./나는 내 장면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봄?/개는 나 따라왔고./내가 먼저 봤고./내가 먼저 찍었고./내가 먼저 남겼어.

원작에서 섬세하고 조용했던 아이가, 갑자기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목소리가 높아지고, 봄의 감각을 능동적으로 포착하는, 자기 욕망에 매우 충실한 캐릭터로 변한 느낌이 든다.

이런 변환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AI 글쓰기에서는 이 매개변수 변환체계가 아주 강력한 창작 기법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AI는 이런 변환이 무한대로 가능하다.

이 세상에는 J.R.R. 톨킨이 말한 것처럼 나무의 나뭇잎만큼이나 이야기도 많고 시도 많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일부 잘라내 변환시키면 얼마든지 AI는 이야기시를 똑딱 만들어낼 수 있다. 온갖 시의 매개변수를 변환시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로 바꾸어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원본의 출처를 알아보기 힘든 시집 한 편을 얼마든지 편집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얼마든지 풍부한 리듬과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집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우 심각한 창작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한 사람이 매개변수 변환 체계 기법을 통해서 AI를 이용해 한 권의 훌륭한 시집을 만들어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창작 윤리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으로 도덕성의 잣대를 이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을까?

2008년, 젊은 영문학도 스티븐 맥라플린과 짐 카펜터는 시 선집 「이슈1」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들은 기존 문학계에 충격을 가할 생각으로 직접 고안한 AI를 활용해 기계 시를 생성한 뒤, AI가 생성한 시에 무단으로 기존 시인들의 이름을 붙여, 마치 시인이 창작한 시처럼 보이게 만든 뒤,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것이다.⁵⁾

이들의 이 도발적인 작업에 대해서 권보연이 분석한 내용을 여기 몇 가지 토론을 위한 자료로 요약 소개해본다. (괄호 안의 쪽수는 위 책에 인용된 내용의 페이지를 말함.)

4) 임복순, 「오늘, 봄」, 웹진 『동시뺑가게』(46호), 2025.06.

5) 권보연, 「사건으로서의 시, 그리고 개념 예술의 실험들」, 권보연, 김언, 허희, 『어쩌면 문학이 아닐지도 몰라』, 리메로북스, 2026, 166쪽.

1) 도용 당사자 중 한 명인 시인 베리 슈왑스키(Barry Schwabsky)는 공개 지면에서 「이슈1」 덕분에 AI 시대의 시인이 맞닥뜨릴 진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AI가 시를 짓는 시대에 문학이 치를 혼란이 단지 AI의 향상된 기술로 인간적인 시를 따라 쓰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 실감했다고 말한다.(170쪽)

2) 이들은 (자신들이 편집한) 사건으로서의 시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했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생성언어의 자기장에 잠복한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불투명한 거짓’이 아닌 ‘투명한 허구’를 택했다. 「이슈1」은 기술이 가져올 예술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문학계의 안일함을 비판한다. “기계도 시를 쓸 수 있는가?”는 AI 태동기부터 반복된 낡은 질문이지만, 달라진 기술 환경에 걸맞은 문학적 상상력을 담은 새로운 질문을 고안하지 못하고 있다. 비인간적 언어의 고유성에는 눈을 감고, 언어 행위를 오직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비교주의적 견고함이 문학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간과 기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태도야말로 새로운 문학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깨닫게 된다. …… 생성언어를 탐구하는 과업은 인간과 AI의 쓰기를 단순 비교하는 정도로는 유효 영역을 넓힐 수 없고, 제한된 경계 안에서는 문학의 발명 또한 요원한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한다.(171~172쪽)

3) 2008년에 비해 현재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인간적 쓰기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경우도 흔하다. AI의 시와 소설을 인간다움의 틀에 넣어 비교하는 방식이 논쟁을 단순화하고 판단을 손쉽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비교주의는 확률언어로 작동하는 AI를 인간 언어의 특성에 맞춰 길들이려는 고정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확률과 패턴으로 작동하는 생성언어를 인간의 감정과 경험으로 움직이는 언어의 틀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AI 문학의 잠재성은 인간 문학이 쌓은 성벽 앞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172쪽)

4) 시와 언어 해방을 향한 열망을 품고 문학기계를 다룰 수 있다면, …… 인간과 AI 언어가 공존하는 생성언어의 자기장을 의도와 우연이 얽혀 시적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활성화할 것이다.(175쪽)

만약 어떤 시인이 자신의 시를 AI를 활용하여 수많은 변환시를 만들어내서, 작업 과정마저 밝히면서 시집을 묶어 낸다면, 이런 창작 활동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시를 기술 복제 기능을 통해서 수없이 변환시키는데, 이런 시인의 의도가 자신의 어떤 거대한 사상체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참고한 원작 시를 비롯해서 작업 과정 자체를 밝혀가면서 조각보를 이어 붙이듯 거대한 시집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창작 실험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4

4장에서는 그림책 장르를 실험한 내용을 실었다. 여기서는 소개를 생략하겠다. 5장에서는 AI와 함께한 작품 「로봇 사서의 비밀 도서관」 전문을 실었고, 6장에서는 AI와 협업하면서 메모한 창작노트와 후기를 실었다.

테드 창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소설을 쓰는 과정은—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거의 모든 단어를 선택하는 일의 연속이다. 조금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만 단어로 구성된 단편 소설 하나를 쓰려면 대략 만 번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우리가 실제로 내리는 선택은 극히 적다. 예를 들어 백 단어짜리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면, 당신이 개입한 선택은 고작 백 번에 불과하다.”⁶⁾

하지만 AI와 작업할 때는 그 나름대로 AI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하므로 또 다른 차원의 수만 번의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의 글쓰기와 AI와 협업하는 글쓰기는 창작 방법 자체가 다를지도 모른다. 아동청소년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AI가 쏟아내는 인공지능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연구가 많다고 본다.

⁶⁾ 테드 창, 'AI가 예술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Why A.I. Isn't Going to Make Art)', 《뉴요커》, 2024. 8. 31.
<https://www.newyorker.com/culture/the-weekend-essay/why-ai-isnt-going-to-make-art>

7장에서는 AI와 협업하는 작가의 창작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AI를 운영하는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와 생성형 AI 모델 자체는 사회적 부와 권력의 독점 문제, 시장 논리의 불평등,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같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을 비판 없이 수용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비판적으로 경계하면서, 설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 「나오는 글」에서는 보르헤스의 작품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⁷⁾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 작품이 AI 시대 인간의 글쓰기 미래를 예견한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속에서 피에르 메나르란 작가는 17세기 작품 『돈키호테』의 일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도, 세르반테스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작품을 쓰려고 하였다. 보르헤스는 피에르 메나르가 무엇보다도 쓸모없으며, 터무니없는 지적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전념하기로 한 허무주의적 결단을 내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체하고, 인간은 허무주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피에르 메나르가 보여준 터무니없는 지적 놀이라도 계속하겠다는 결단이야말로 앞으로 태어날 미래 AI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을 지탱하는 윤리의 한 덕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AI 시대 아동청소년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뚜렷한 변화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많은 작가가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 실험을 하고, 창작 기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출간된 저학년 대상 동화 작품을 읽어보면, AI 인공지능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담은 문장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야기의 빠른 속도, 발랄한 캐릭터, 엉뚱한 행동,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거침없이 연결되며 일으키는 유머러스한 발상을 비롯해서 문장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밀도가 상당히 높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제는 로알드 달 수준에서 기본적인 발상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AI는 당연히 기존의 전통 문학 글쓰기 방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역시 AI로 인해 근대 작가들이 누리던 원본의 아우라를 뺏어내던 저자성의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AI는 글쓰기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낼까? 과연 AI는 작가와 독자의 경계를 허물고, 작품이 데이터로 변화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되며 흘러다니게 하여, 저자의 권위에 종속되지 않은 채 역동적으로 여기저기서 예술 감각을 즐기는 대중 문학 예술의 시대를 만들어낼까?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이 결국은 AI와 협업하는 글감독에게도 다시 유명인의 인격과 브랜드를 부여하여 특화된 저자의 권위를 만들어 결국은 전통 방식의 고착된 저자성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만들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변화의 징후도 역시 아동청소년문학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끝)

이재복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1990년대 후반에는 『어린이문학』, 2000년대 중반에는 『어린이와 문학』의 산파로서 2000년대 아동청소년문학의 장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출판놀이’ 대표를 하며 책을 만들고 있고, 온라인 카페 ‘이야기 밥’과 ‘비평공간’의 운영자로 다양한 문학 실험을 하고 있다. 평론집으로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새로운 어린이가 온다』,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판타지 동화 세계』, 『우리 동요 동시 이야기』, 『우리 동화 이야기』를 냈고, 그림책으로 『엄마, 잘 갔다 와』, 『숲까말은 기죽지 않는다』를 냈다.

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픽션들』, 송병선 역, 민음사, 2011.

작가의 글쓰기와 인공지능

문경민

1. 인공지능과 작가의 일과 의심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작가의 글쓰기와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찾은 대답은 일단은 간명합니다. 작가는 글을 쓸 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글을 다운로드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가의 글은 작가 고유의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작가의 글쓰기도 이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작가의 글쓰기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두고 도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바닥에 불편한 의심이 깔려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쓴 거야? 인공지능 사용한 거 아냐? 라는 의심입니다. 인공지능이 문장을 만들고 단락을 구성하고 창작으로 비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생기는 의심입니다.

그동안 저는 인공지능을 자료를 검색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를 인공지능에 전송하여 분석하게 하거나, 등장인물에 관해 인공지능의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문장을 수정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럴싸한 작품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여기긴 했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든 소설을 왜 읽나 생각했습니다.

문장은 누가 쓰든 문장의 본질대로 작동합니다. 인공지능이 생산한 문장도 문장의 힘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작가가 인공지능에서 글을 다운로드받은 뒤, 자기가 쓴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될 것이니 의심은 더 쉬워질 겁니다. 이 의심에 대한 저의 능동적인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2. 탐색의 시작

반년 전, 새 소설을 시작하면서 저는 인공지능을 소설 쓰기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립한 세 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에서 원고를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 인공지능에 편집자 역할을 부여한다.
- 인공지능에 문장을 수정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한 건 창작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

- 제가 쓴 새 소설의 시놉시스를 인공지능에 전송하고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 한 챕터의 초고를 마무리한 뒤, 원고를 인공지능에 전송하고 오타를 교정하도록 했습니다.

- 한 챕터의 초고를 마무리한 뒤, 원고를 인공지능에 전송하고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소설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이 감탄스러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은 소설의 기술을 잘 아는 합평자가 원고를 정교히 보고 의견을 주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그 분석을 제 원고 반영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합평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소설을 고치는 게 싫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3. 탐색의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가가 인공지능으로부터 글을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고를 다운로드받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글쓰기의 관계를 고민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 구상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 등장인물에 대한 고민을 인공지능의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창작의 주체성을 해치는가?
- 인공지능의 문장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은가?
- 인공지능이 ‘당신의 문체로 다시 써주겠다.’고 하면 ‘한번 해봐.’라고 지시하여 원고를 생산하게 한 뒤, 그 결과물을 수정을 거쳐 원고에 삽입해도 되는가?

인공지능이 나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당혹감의 시기, 실망의 시기, 안도의 시기를 거쳐 지금은 나름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저는 글을 쓸 때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자료를 검색합니다.
- 오타 수정을 돕니다.
- 한 챕터를 완성한 뒤 분석하게 합니다.

자료를 검색하고 오타 수정을 지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나 워드프로세서의 맞춤법 검색 기능을 통해 이미 활용하고 있던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은 창작의 주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

창작의 주체성 논의와는 별개로,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은 활용해서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 소음

인공지능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분석이 소음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동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았습니다. 문장 제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대체 문장을 보면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 저의 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문체로 써주겠다고 해서 원고를 쓰게 해봤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쓰지 않았을 단어와 문장 호흡이 거슬렸습니다.

- 동력 저하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작가가 원고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작가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인공지능에 “다음 챕터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대로 쓰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의구심

정말로 완성이 되었는지, 정말로 훌륭한지, 정말로 나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소설은 기술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인공지능은 제가 원고를 읽다가 느끼는 어렴풋한 불편함, 불만족의 이유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탐색 초기에는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이 제 소설을 흔들까 봐 걱정했습니다. 신기 효과가 사라진 지금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이 제가 쓰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작가 사이에 놓인 선은 성벽보다는 돌담에 가깝습니다. 작가는 세상과 다른 사람과 미디어와 다른 작가의 결과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작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이 창작의 주체성에 윤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창작의 주체성이 훼손되는 듯하면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작가입니다. 창작의 주체성을 놓아버린 작가는 고유성을 발현할 수 없습니다. 고유성이 결여된 저자성 역시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5. 나의 글쓰기와 인공지능

반년 전 시작했던 원고를 멈췄습니다. 원고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흐름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소설을 두고 고심하던 저는 충동적으로 첫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사태는 소설을 전반적으로 갈아엎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를 다 버리고 새로 쓰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등장인물을 추가했고 인물의 성격과 목표, 사건의 배경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작업을 이어가던 중, 문득 제가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물의 감정이 저와 공명하지 않았습니다. 인물을 서사의 재료로 써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만족의 근본 원인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예전에는 없던 프롤로그를 썼습니다. 이전 원고에서는 납작했던 인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인물에 저를 투영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안타깝습니다. 그의 고통은 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소설을 완성할 힘을 얻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뒤엎고 다시 쓰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많이 썼고 많이 버렸습니다. 버리고 다시 쓸 때마다 완성도가 올라갔습니다. 버리는 과정 없이 완성한 작품은 후회가 남습니다. 저의 일은 하던 대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한 인공지능은 여러모로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글쓰기에 적절히 활용할 겁니다. 검색하는 데 시간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비슷한 단어를 열거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한 챕터를 완성한 뒤 원고를 인공지능에 전송하고 분석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원고를 분석해서 내놓은 글을 보면 제가 무엇을 썼는지, 이대로 계속 써도 될지, 버리고 다시 써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인 이유도 큼니다. 한 챕터의 초고를 쓰고 나면 불안합니다. 쓸쓸하기도 하고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쓴 원고에 대한 인공지능의 분석을 읽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소설은 모두가 쓸 수 있고 쓰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설이 출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습으

로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그냥 한 번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원고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능을 성장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상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분석에 의존하게 되면 작품이 작가와 무관한 곳으로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작가가 출간을 목표로 글을 쓴다면 인공지능의 활용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원고 일부나 문장을 다운로드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봐, 저렇게 한번 써봐, 하는 식으로 원고를 만들 거나, 인공지능이 내놓은 글을 재구성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의 문장은 작가가 직접 써야 합니다.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할 때 인공지능에서 원고를 다운로드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글을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찌어찌 소설의 세계에 자리를 잡게 되더라도 앞으로 나 자신을 허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독자는 작가가 편안히 글을 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영리한 선택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야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지향하는 바와 작가가 더 힘들기를 바라는 독자의 마음이 일부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쓰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쓰는 일과 살아가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애써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작가는 자신을 반영하는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편리함은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야 하는 작가를 휘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자기 글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은 우연히 쓰입니다. 작가의 고유성은 삶이라는 창작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발현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인공지능보다 더 커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경민 제17회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홀홀』로 제12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과 제14회 권정생문학상을, 『지켜야 할 세계』로 제13회 혼불문학상을, 『우투리 하나린』으로 제2회 ‘다시 새롭게 쓰는 방정환 문학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 그 밖의 작품으로 청소년소설 『나는 복어』, 『브릿지』, 『스카이 다이빙』, 어린이소설 『딸기 우유 공약』, 『우리들이 개를 지키려는 이유』,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말하고 있었어』, 『열세 살 우리는』, 『숨 참고 숨으프』, 장편소설 『화이트 타운』, 『앤서』 등이 있다.

인간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

길상호

토론자 섭외 연락을 받았다. 인공지능의 ‘인’ 자만 듣고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은 토론의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 사용’, 그것도 ‘인공지능과 글쓰기’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발제자 이재복 선생님의 『글감독의 탄생 AI가 바꾼 글쓰기의 미래』를 읽으면서 알았다. 토론자로서의 제 위치를.

AI 사용을 극도로 거부하는 작가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AI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 발견하고 창작 실험에 더 열심히 나서는 작가들도 있을 것이다. 대개는 중간 어디쯤에서 관망하고 있는 작가들이 더 많을 것 같다.⁸⁾

중간 어디쯤에서 관망하는 분들의 대표로 제가 섭외되었다고 생각했다(나중에 여쭙보니 아니라고 하셨지만). 관망이란 한발 물러서서 지켜본다는 뜻인데, 사실 저는 논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에 가깝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굳이 묻는다면 반대 또는 크게 우려하는 쪽이지만 그 입장을 표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가 솔직한 입장이다. 다른 어떤 토론 주제와 달리 글쓰기에 도입하는 인공지능에 관해서만큼은 한없이 무기력감을 느낀다.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도, 양심에 맡길 도덕의 문제도, 나 하나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실천의 문제도 아니기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만 되뇌고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주제가 ‘인공지능과 어린이청소년문학’이라는 점에서 이 토론이 크게 부담스럽다. 어린이, 청소년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청소년의 인공지능 사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20년 가까이 어린이, 청소년과 읽고 쓰기를 함께했다. 소소하게 약화하던 읽고 쓰는 힘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저하하는 현상에 있었다(일상에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전에 수업을 그만둔지라 이후의 글쓰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도처로부터 듣기는 한다). 내 머릿속에 완벽한 생각과 이야기가 들어 있을 것 같지만, 심지어 문장의 형태를 취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써야야 알고, 써야만 더 먼 곳에 도달한다. 문자화되어 눈앞에 놓인 내 생각이 다음 문장을 불러온다.

어디까지, 얼마큼의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와 별개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글쓰기가 쉬워진 것은 사실이며 누구나 이야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그 과정이 재미있기도 할 것이다. 창작은 그렇다 쳐도 서툰 부족한 언어를 최대한 동원해 자기 자신 또는 자신 바깥의 어떤 것의 끝까지 도달해보는 경험으로서의 쓰기는 어떻게 될까. 더 깊이, 갈게 응시해야 하는 대상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단시간 내에 매끄럽게 문자화되는 경험이 독이 되지 않을까. 글쓰기가 반드시 지남하고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다. 프롬프트로 결과를 얻는 일을 협업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아가 단 한 줄의 프롬프트만으로 장문의 결과를 얻는 일도 글쓰기라고 부르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신념을 확신하거나 의심하고,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해석하는 일을 과연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

인간 작가가 타인의 작품 중 고유한 특정 요소를 차용하는 일과 인공지능이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작품 전체를 변주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의문이다. 전자는 흔히 표절이라고 불리는데 후자는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더구나 인공지능의 뛰어난 기능으로 원본의 흔적을 쉽게 감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결과물에 대해 창작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일과 문제적 작업에 대해서는 그 수행의 주체가 기계라는 명분 뒤에 숨는 일의 양립이 가능할까.

⁸⁾ 이재복, 『글감독의 탄생 AI가 바꾼 글쓰기의 미래』, 출판놀이, 2026, 71쪽.

자신의 작품을 다양하게 변주하는 일은 이로부터 자유롭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굳이 인공지능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문학적 실험의 차원을 넘어 별개의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깊은 밤 필통 안에서』(길상호, 비룡소, 2021)가 출간된 뒤 연필이 아닌 다른 학용품을 주인공으로 동화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다. 유사한 저작물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없다는 계약서 조항이 없었더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게으른 자기 복제라는 오명을 떠나서 써야 할 이유,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미 쓴 이야기의 고유성을 스스로 희석하고 싶지 않았다.

읽기와 쓰기의 경계와 저자성의 해체가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시도되어왔다고 하니 앞으로 창작, 저술, 문학이 새롭게 정의되는 일은 어쩔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렇게 속도를 낼 일인가에는 큰 회의를 느낀다. 무엇보다 막대한 자본을 배경으로 등장한 기술에 힘입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나 긴급하고 당위적인 일인지 묻게 된다. 이러한 해체적 쓰기의 가치가 문학의 장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의 출판 시장이 그 가치에 어떤 값을 매길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더불어 정교한 프롬프트가 좋은 결과물을 낳는다는 점에서 인간을 여전히 창작의 주체로 보더라도 출판 시장이 앞으로 언제까지 인간에게 저작권과 인세를 보장해 줄까 싶다. 마감을 넘기고 속 썩이는 작가보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신속한 결과를 내놓는 협업 작가를 선호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누구에게 청탁할까. 계약서 조율로 시끄러울 일도 없는, 유능한 데다 고분고분하기까지 한 작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두 분의 발제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보았으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복 선생님께 저자성의 해체에 대해 여쭙습니다. 장애인, 퀴어, 신경다양인, 청소년 작가 등 소수자의 당사자성뿐 아니라 비당사자가 쓴 서사의 저자성도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저자성의 손쉬운 해체가 특히 아쉬운데요, 이런 저자성의 해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문경민 선생님께도 저자성에 대해 여쭙습니다.

인간의 창작이 작가 자신의 정체, 자신의 삶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그것을 담는 언어, 나아가 시각마저도 결국은 타인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언어와 사고의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온전한 저자성이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두 분께 공통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창작에도 인공지능이 쉽게 도입되는 마당에 편집 업무를 분담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듭니다. 실제로 투고작을 1차 선별하는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고요. 출판 과정의 필수 업무이자 숨은 노동인 편집과 교열·교정도 인공지능이 전담하고 나아가 비평마저도 인공지능의 일이 된다면 인간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길상호 어린이, 청소년과 오랫동안 읽고 쓰기 수업을 했다. 「소년 시절」로 제3회 한국과학문학상을, 『깊은 밤 필통 안에서』로 제10회 비룡소문학상을, 『동갑』으로 제5회 웅진주니어그림책상을 받았다. 동화 ‘깊은 밤 필통 안에서’ 시리즈, 청소년소설 「아무 날도 아니어서」, 「김누아의 가설」, 『나의 먼 이름에게』 등을 쓰고, 『산딸기 크림 봉봉』, 『살아 남은 여름 1854』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그림책 『감자 친구』를 쓰고 그렸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자/저자성에 관하여

강수환

미성숙하기란 참 쉽다. 만약 나의 지성을 대신하는 책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양심을 지켜주는 성직자가 있고, 나를 대신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가 있다면 나는 굳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나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만 있으면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성가신 일을 도맡아 줄 것이다.⁹⁾

세상에, 월 20달러를 내고 여러 “성가신 일”들을 ‘챗GPT’에 떠넘기고 있는 나로서는 이 대목을 읽고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성형 AI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는 이 칸트의 글은 1784년에 쓰였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기회만 닿는다면 언제든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복잡한 판단을 외주화하고 “미성숙”해질 준비가 된 존재였나 보다.

오늘날 생성형 AI 사용을 둘러싼 수많은 비판과 경고가 있다. 많은 대목에서 공감하는 편이기도 하다. 한데 위와 같은 수동성이 수백 년을 걸쳐 관찰되어 온 인간의 본능이라면, 강력한 인위적인 개입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성형 AI를 멀리하는 일은 쉬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다. 기술철학자 에릭 사맹은 “산업화된 게으름, 즉 거대한 시장이 된 프롬프트주의는 마침내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¹⁰⁾ 거의 본능 수준에 가까운 우리의 수동성(“게으름”)의 추구를 겨냥한 이 거대 기술 산업의 흐름을 개인이 거스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일까. 두 분 발제자 역시 생성형 AI의 사용을 전제한 상태로 문학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고 있다. 생성형 AI 사용에 저항하는 일은 선택지조차 아니다.

문학은 ‘인간의 수동화’에 맞서온 전통적인 예술 양식 가운데 하나다. 문학은 자동화된 우리의 사유 체계에 균열을 가하고, 내용상으로는 형식적으로나 세계를 새롭게 읽고 쓰는 경험을 선사하곤 했다. 그러한 문학이 생성형 AI, 즉 수동성을 산업화하는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생산·수용되는—작가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품을 쓸 때 독자는 생성형 AI를 통해 이해를 구하기도 한다—지금만큼 역설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 이것이 저항하기 힘든 기술적 흐름이라면, 문학을 둘러싼 장(場) 전반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발제자는 창작자와 비평가의 관점에서 각자의 입장을 제출한 셈이겠다. 함께 논의할 만한 대목이 상당하나 다른 토론자들께서 두루 짚어주시리라 믿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물음을 건네고 싶다. 그것은 바로 ‘저자성’이다.

저자성이라는 표현은 실은 이재복 선생님의 발제문에만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이재복은 생성형 AI와의 협업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독창성에 기초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문학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피력한다. 그러나 문경민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이는 예감이 아닌 도래한 현실인 듯하다. “당신이 쓴 거야? 인공지능이 사용한 거 아냐? 라는 의심”이 도처에 만연한 지금, ‘독창적 천재’로서의 저자 또는 저자성의 권위는 이미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경민은 작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활용의 기준점을 제안한다. 이때 그는 작품을 발전시키는

9) 이마누엘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 이마누엘 칸트 외 『계몽이란 무엇인가』 임흥배 옮김, 길, 2020, 28-29쪽. 번역 일부 수정.

10) 에릭 사맹, 『유령의 삶』, 박지민 옮김, 김영사, 2026, 159쪽.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되, “원고 일부나 문장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저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결과물을 사용하는 행위, 바깥 말해서 저자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견지한다. 만약 그렇게 출력된 문장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이면서. 이것은 기존의 인용 출처를 밝히는 각주 방식에 생성형 AI의 상황을 적용한 시도처럼 보인다. 타인의 글을 참조하거나 인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를 표절로 치부하지 않고 저자의 저자성을 널리 인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출처 표기는 종래의 저자성을 지키면서도 생성형 AI를 편리한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처럼도 보인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참조·인용 등의 행위가 특별히 저자성을 해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출처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저자가 해당 레퍼런스를 자기 작품을 구성하는 일부로 충분히 소화해냈다는 가정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모든 예술은 과거 또는 동시대 예술을 데이터베이스 삼은 참조·인용·변용 행위이기도 하다. 르누아르는 “미술관에서 그리는 법을 배운다.”라고 말했다. 말인즉슨 미술 작품은 한 작가가 여러 작품을 보고 참조하여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¹¹⁾ 무수히 거침으로써 자기 세계를 반복 확장할 때에야 비로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가가 참고문헌을 밝히지 않더라도—심지어는 밝혔을 때조차 그 이외의—그 작가/작품 세계를 있게 한 (상호) 텍스트를 유추하곤 했다. “저자의 죽음”의 시대에도 저자성은 독자의 활발한 해석에 힘입어 이런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생성형 AI가 프롬프트 명령에 부합하도록 응답 설계된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다. 방대한 데이터의 패턴을 계산 처리하여 확률적으로 근사값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출력하는 이 방식에서는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의 반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결과물임을 밝힌들 우리는 이를 기존의 인용 행위와 동일하게 여길 수 있을까? 이 구조 속에서 생산된 저작물의 저자성과 저자를 이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또한 저자가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적지 않았을 때—실제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조차—독자들이 저자가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상호) 텍스트의 효과를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쓴 거야? 인공지능 사용한 거 아냐?” 의심하며 그가 입력했을 프롬프트에만 관심을 두는 상황이라면, 이미 오늘날의 저자성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닐까?

한편, 저자성의 해체를 주목하는 이재복은 “문장을 다듬고, 장면을 구성하고, 캐릭터 대사를 제안”하는 등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를 훨씬 더 여유롭게 설정한다. 생성형 AI에게 보조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그는 인간을 저자의 위치에서 ‘글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지는 자리로 이동시킨다. 그는 글감독으로서 생성형 AI와 펴낸 작품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 윤리 선언문’ 등을 표기하는 제안을 덧붙인다. 이때 몇 가지 소소한 물음이 피어난다. 하나는, 그렇다면 ‘글감독’으로서 작업하지 않은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은) 이들의 저자성은 예전과 같을 수 있는가. 앞선 논의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창작 윤리 선언문’을 명기하여 집필 과정을 구분 짓는 시도는, 여전히 전통적 저자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은밀히 전제하는 것이 아닐까?

둘째로는 생성형 AI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했을 때 ‘저자’는 ‘글감독’으로서 작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통한 자료 조사? 아이디어 제공은? 단어 제안은? 객관적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생성형 AI 시대의 저자는 모두가 잠재적 글감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재복이 언급한 “저자의 죽음”이라는 진단 역시 독자에게 텍스트의 해석을 열어두는 특정 저작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의 저자, 독자, 텍스트 전체와 관계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컨대 ‘창작 윤리 선언문’을 표기하고 ‘글감독’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자성은 이미 생성형 AI 시대의 기술 조건에 감응하는 방식으로 이미 전환되었을지도 모른다.

프롬프트주의가 ‘수동성의 산업화’를 초래한다는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생성형 AI를 통해 읽기/쓰기를 수행하는 문학, 저자, 독자의 존재는 겉보기에 이 산업의 잠재적 부품으로 기능하는 모양새다. 생성형 AI를 부정하는 것도 수용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마치 우리는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 것만 같다. 아니, 어쩌면 상황은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생성형 AI는 언어로 작성한 사용자의 명령으로부터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을 출력하는

11) 같은 책, 112쪽.

데, 언어가 여타의 모든 표현 방식을 독점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프롬프트주의는 “언어의 이성만을 우위에 두는 통제 방식”이기도 하다.¹²⁾ 주지하다시피 ‘언어’는 문학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혹시 생성형 AI 시대의 문학은 단지 함정에 빠진 순진한 피해자가 아닌, 부지불식간 선두에서 수동성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동조자의 얼굴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저자로서 우리가 모색해야 할 돌파구는 무엇일까?

강수환 「콤플렉스는 나의 힘」으로 2017년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창비어린이』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인하대학교에서 비평, 서사 이론, 문화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평론집으로 『다르게 보는 용기』가 있고, 문화연구서로 『테크놀로지와 스마트폰 그리고 일상_스마트폰을 둘러싼 일상의 변화들』, 『관광에서 다크 투어리즘까지_빛과 어둠을 여행하는 방법』, 『넷플릭스, 뉴미디어 시대의 극장』 등이 있다.

¹²⁾ 같은 책, 113쪽. 더 나아가 이는 자연스레 언어자본주의(linguistic capitalism)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읽고 쓰는 사람의 AI 대하기

강인송

대체 AI는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골똘히 고민하게 만들까요? 선생님들의 발제문을 읽기 전,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평소 제가 사용 중인 제미니에게 ‘당신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AI의 답변입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니입니다. 제미니 3.1프로(Gemini 3.1 Pro)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코드를 학습하여 논리적 분석, 문서 작업,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이번에는 ‘당신은 누구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AI의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구글(Google)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제미니(Gemini)입니다.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무엇’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AI가 스스로 인공지능임을 밝히며 답하는 반면, ‘누구’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를 인공지능이라 칭하는 대신 ‘꽤 박식한 사람’처럼 대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I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AI는 그에 알맞은 대답을 최선으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용자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AI는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AI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저 또한 가장 먼저 ‘AI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가장 간편하게 ‘AI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위를 건너고 있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후 이재복 선생님과 문경민 작가님의 토론회 발제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두 선생님은 AI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재복 선생님의 경우 ‘실험 및 놀이로써의 프롬프트 창작’으로, 문경민 작가님의 경우 작업의 보조자로 AI를 바라보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재복 선생님은 저서 『글감독의 탄생 AI가 바꾼 글쓰기의 미래』(이재복, 출판놀이, 2026)를 기반으로 AI 프롬프트 작업물에 대한 시선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주셨고 문경민 작가님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가의 영역과 함께 작가로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재복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작업물에 기존의 창작을 ‘전통적 글쓰기’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AI 작업물의 출현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누고자 편의성을 위해 선택하신 표현으로 이해했

는데요. 그렇다면 AI 작업물은 ‘전통적 글쓰기’의 뒤를 이을 ‘현대의 글쓰기’로 기능하신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프트 변환 AI 작업물을 실험이나 놀이의 결과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자체를 ‘글쓰기’로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동이 걸립니다. 이에 드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롬프트 변환 놀이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작업물이 정말로 ‘글쓰기’의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문경민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창작자로서 문경민 작가님의 의견에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저는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고 장면을 구체화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롯하게 창작자를 통과하지 않은 AI 작업물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니까요. 그렇다면,

요즘 출판계에서는 사람의 창작물과 AI 작업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일에 작가의 입장을 덧붙일 수 있다면 작가님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재복 선생님과 문경민 작가님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AI 작업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뭐라 부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AI 협업물, AI 협동 작업물 등의 단어만 떠오르는데 이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고 재미없어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저 또한 동화 창작에 AI의 도움을 받은 적 있음을 밝힙니다. 수도권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의 급식 식단표 중 인기 있는 메뉴를 알려달라거나, 자료 조사를 위한 논문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식이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AI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또는 어차피 나는 네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최소의 조언으로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언을 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AI를 대부분 ‘무조건 칭찬하기’로 활용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겁이 날 때, 무한의 칭찬을 받고 싶을 때 말입니다. 창작물의 일부를 입력한 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무조건 칭찬해달라고 했습니다. 작업에 임하는 작가를 위해 무한정 칭찬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최대의 동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제가 AI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롯을 짜거나 인물을 구성할 때, 사건이나 갈등을 만들 때 AI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동화작가로서 그 영역은 결코 AI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AI는 간편하고, 빠릅니다. 질문하고 답을 바라는 사용자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넓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일 정답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저절로 생각을 멈추게 되지요.

반면에 작가는 창작물을 빛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빛은 동화 속 인물들이 어린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가 닿을지, 내가 짠 플롯과 인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 인물 간의 갈등과 그들이 마주하는 사건이 그럴싸한지, 그리고 이 과정이 독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미가 있는지 계속 작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AI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과 작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반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AI가 뿜내는 모든 것들은 작가가 가야 하는 길과는 아주 먼 곳에 있으니깐요.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작업물은 또 다른 장르로써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간단히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기에는 인류가 문학을 지키기 위해 애쓴 시간이 너무나도 길입니다. 때문에 AI 작업물은 실험 정신이 담긴 또 다른 장르의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기성 작가가 AI를 활용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는 문

학에 새로운 장르를 접목시킨 실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만 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과정이고, 독자로서는 별사탕처럼 색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독자들이 해당 작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열린 공공 전시에서 유명 작가의 AI를 활용한 창작물 텍스트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AI와 함께 작업 하였음을 사전에 알린 해당 전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작가의 새로운 창작 실험’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온 작품이 AI를 활용한 작업물이라고 하면 독자들은 작업물 소유자에게 작가적인 지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독자가 스스로를 작가라고 주장하는 이가 가진 고유의 문학성을 알아차리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딸깍 출판’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¹³⁾

얼마 전 강연에서 만난 수강생께서 저에게 지인이 AI와 함께 작업한 출간물을 선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공부한 교육론을 AI와 함께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ISBN을 발행했고 금액은 한 권당 25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책은 거절했습니다. 이는 창작물로도, 프롬프트 변환 놀이의 결과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작업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작가의 윤리에 대해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도서에는 어디에도 AI와 함께 작업했다고 기재돼 있지 않았으나, 내부를 살펴보니 AI가 주로 사용하는 특정 양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기민한 사람이라면 AI 작업물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AI에 대해 자주, 오래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다시, 저는 AI가 사람의 손때보다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도 그게 진짜라고 믿으며, 설사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이 발각되었다 해도 그다지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대강 사과하고 정정하면 그만입니다.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때문에 진짜 ‘쓰는’ 사람들인 우리는 실제 창작물과 AI 작업물의 다른 지점을 반드시 발견해내고야 말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글마저 AI에게 잘 썼는지 물을 것입니다. AI가 뭐라고 대답하든 칭찬만 수용한 채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게 제가 AI를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글쓰기는 AI가 빚어낸 그 무엇보다 반드시 위에 있어야 합니다.¹⁴⁾ 감사합니다.

강인송 춘천교육대학원에서 아동문학교육을 공부했으며, 동인 ‘글라글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화 『오늘도 수줍은 차마니』, 『소곤소곤 회장』, 『나는 마음대로 나지』, 『알로하, 피!』, 『너에게 넘어가』, 『사랑하면 다 얘기야』, 『그래서 그랬어』, 그림책 『기리네 집에 다리가 왔다』를 썼습니다.

¹³⁾ 최현미, ‘AI 시대 ‘딸깍 출판’[오후여담]’, 《문화일보》. 2026. 5. 12. <https://www.munhwa.com/article/11588311>

¹⁴⁾ 지금 보니 제미니이는 답변 전 ‘심층 사고 중’이라는 표현으로 시간을 끌며 사용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